

# 오늘밤! 금빛 퀸



sochi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 피겨 프리스케이팅 출전

드레스 리허설 완벽...컨디션 최고

IOC 홈페이지 'It's Yuna time!'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제 김연아의 시간이다!(It's Yuna time!)'고 소개하며 '피겨 여왕'의 대관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IOC는 "피겨 스케이팅 팬들은 20일 TV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할 것"이라며 "올림픽 챔피언 김연아가 빙판 위에 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6분 33초짜리 인터뷰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연아는 자신을 직접 소개하며 피겨 스케이팅의 매력을 설명했다. 선배로서 어린 선수들에게 조언을 남기는 한편 소치 대회에서의 목표도 다시금 전달했다.

김연아는 "마지막 올림픽인 만큼 후회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며 "마상 경기 날이 되면 긴장하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마음

비우고 편하게 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김연아는 '두 번째 대관식'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19일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3조 드레스 리허설에 나서 점프와 스핀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입을 올림브 그린색 드레스에 트레이닝복 상의를 껴입고 링크에 들어선 김연아는 빙판을 생생 달리며 몸을 풀었다.

앞서 훈련을 마친 후배 박소연(17·신목고)도 선수석에 앉아 김연아의 연습 장면을 지켜봤고, 태극기를 들고 나온 팬들도 눈에 띄었다.

김연아는 5분가량 몸을 풀고서 드레스 차림으로 빙판에 돌아와 자신의 음악이 나오기 전에는 점프 감각 끌어올리기에 힘썼다.

가장 먼저 더블 악셀 점프를 뛰려다 도약 자세만 취한 김연아는 재차 더블 악셀을 시도해 성공했다.

더블 악셀-더블 토티플-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 이어 트리플 살코, 트리플 살코-더블 토티플 점프도 문제없이 소화했다.

트리플 러츠, 트리플 플립 등도 깔끔하게 댄 김연아는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티플 콤비네이션 점프도 해내며 기분 좋게 연습을 이어 갔다.

몇 시간 뒤 연기할 쇼트프로그램 '어릿광대를 보내주오'가 흘러나오자 애절한 표정과 함께 음악에 몰입했다.

연기 초반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티플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플립 점프를 무난하게 뛰어오른 김연아는 이어진 스핀은 건너뛰었다.

마지막 점프 과제인 더블 악셀은 예정대로 뛰었으나 다시 레이백 스핀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숨을 돌렸다.

스텝 시퀀스를 이어가던 중에는 이어진 빙판에 스케이팅이 걸려 잠시 멈추기도 한 김연아는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음악이 끝나고서 신혜숙, 류종현 코치와 얘기를 나누는 김연아의 표정은 답답하면서도 차분해 보였다.

음악이 끝나고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티플 점프를 재차 다룬 김연아는 총연습 막바지에는 음악이 나올 때 건너 뛰 플리잉 카멜 스핀 등 스핀을 반복 연습하면서 '마지막 대관식'에 앞선 최종 리허설을 마쳤다.

/연습뉴스

## “급할수록 천천히” 윤석민에 띄운 응원 메시지



김여울 기자

KIA 전훈캠프 오키나와를 가다

윤석민(볼티모어)이 보내온 사진과 소식에 19일 오전 KIA 선수들의 전화가 부지런히 울렸다.

윤석민은 한국시간으로 19일 새벽 입단식을 갖고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 선수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18번 배번을 받은 윤석민은 새 유니폼 사진을 동료들에게 보내 즐거운 소식을 알렸다.

KIA선수들도 꿈을 현실로 이룬 윤석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기쁨을 나눴다. 특히 윤석민이 각별하게 아꼈던 두 후배 양현종·심동섭이 룸메이트

를 이룬 방에서는 큰 웃음 소리로 터졌다. 장난기가 발동한 후배들이 유니폼과 모자 차림의 윤석민을 치킨회사 로고 같다고 놀리면서 티격태격 즐거운 대화가 오고 간 것이다.

양현종은 “아침에도 문자를 했는데 선수들도 잘해 주고 모든 게 신기하다고 했다. 성격이 원래 좋으니까 두루두루 친해질 것 같다. 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윤석민의 2014시즌을 응원했다.

심동섭은 기다리던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서운하다. 특별했던 선배의 빈자리가 아직은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심동섭은 “많이 따르고 의지했는데 형이 없으니까 허전하고 서운하다. 건강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현종이 형과 빈 자리를 잘 채우도록 하겠다”고

자조를 다졌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배들은 ‘급할수록 천천히’라는 구체적이고 애정어린 조언을 남겼다. 윤석민에 앞서 먼저 빅리그를 경험했던 서재응은 ‘부상’을 얘기했다.

서재응은 “몸아프지 말고 잘하라고 통화를 했는데 아프지만 않으면 10승도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가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선발로 갈 것이나 중간으로 갈 것이나 이런 부분이 변수다. 옵션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선발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발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자칫 욕심을 부리다 보면 아플 수도 있다. 아프지 않는다면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ool@kwangju.co.kr



“반기워~” 초창선수 요코하마 캠프에 참가했던 넥센 강정호가 19일 오키나와 기노와 구장에서 넥센에서 함께 뛰었던 김민우와 재회하고 있다. /8 오키나와=김여울기자 wool@

광주 1등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